전통무용의 향연 '소리 그리고 몸짓'

(사)한국무용협회 포천시지부 세 번째 정기공연
7월20일 오후 6시30분 포천반월아트홀 대극장

(사)한국무용협회 포천시지부(지부장 한동엽)는 7월20일 오후 6시30분 포천반월아트홀대극장에서 세 번째 정기공연 전통무용의 향연 '소리 그리고 몸짓' 무대를 마련한다.

이번 공연은 진주교방굿거리, 경기검무, 진쇠춤, 대금산조 연주, 부채춤, 진도북춤, 흥과 멋(풍물놀이) 등 다양한 전통 무용 작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이번 공연은 포천시 청소년과 시민들에게 우리 문화의 우수성과 그 중요성을 일깨워줄 수 있는 계기로 삼고 문화적으로 낙후된 경기북부 지역 문화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한국무용협회 포천시지부는 지난 7년 동안 무용예술 발전과 무용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한 결과 제12회 청소년민속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특히 문화예술 발전을 통해 내실있는 후견양성 및 무용 수준을 높이는 계기를 구축하고 우리 고유의 전통예술의 원형을 전승, 보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전통춤의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자유기고

김세중조각상 시상식 스케치

6월 25일 대한민국예술원에서 제21회 김세중조각상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김세중 선생님은 한국을 대표하는 조각가로서 1986년 타계하셨으며, 그 후 김남조 시인이 주축이 되어 김세중선생님의 예술정신을 기리고 후학을 발굴, 격려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를 만들어 해마다 조각상을 시상해오고 있습니다. 김세중조각상은 말그대로 한국을 대표하는 조각가가 수상을 하는 의미있고, 영광스런 상입니다.

올 해 수상자는 놀랍고 영광스럽게도 김광우교수님(포천중8회, 포천일고6회)이 선정되었고, 조성인 포천중일고총동문회 회장님, 이구상 선생님, 차승현 선배님을 비롯하여 가족, 친지, 동문분들이 시상식에 참여하였습니다.

고풍스럽고 품격있는 대한민국 예술원의 대회의실에서 거행된 시상식은 한국을 대표하는 시상식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장엄하고, 우아한 행사였습니다.

김광우 교수님의 약력이 소개되고, 역대 조각상 수상자의 대표작품이 화상으로 소개되고, 김광우 교수님의 작품세계가 화상으로 방영되었으며, 수상자의 소감, 기념사업회 이사장인 김남조 시인의 인사말도 이어졌습니다.

김광우 교수님의 약력이 소개되자 많은 사람들은 예술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포천에서 출생하여 조각분야의 금자탑을 이뤄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조각가로 우뚝 서신 김광우교수님의 인간승리에 감동어린 박수를 보내드렸습니다.

시상식에 참석한 포천동문들은 누구나 포천인이라는 것이 감격스럽고 자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포천인도 한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고 실제로 최고가 된 모습을 보여주신 김광우교수님께 후배의 한 사람으로서 경의와 감축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김광우 선배님의 김세중조각상 수상이 포천인의 가슴에 긍지와 자부심, 가능성으로 새겨지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금의환향하시어 창수면 주원리 자택에서 작품활동을 계속 하고 계시는 선배님의 앞날에 건승하심과 광영이 늘 함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양호식
(포천배드민턴협회 회장)

뮤지컬 이야기 #⑲

1930년대 뮤지컬 개요 - 브로드웨이

예나 지금이나 정부의 경제정책 뒤에는 문화예술지원금 축소라는 논리가 있어왔다. 보수적인 정부일수록 더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물론 경제가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을 때는 어떤 정부나 대통령도 문화예술정책에 관심을 둘 여유가 없는 것은 당연하다. 현재 한국에 진정한 의미의 문화예술정책이라는 것이 있는가. 사실 현재 한국의 문화예술정책은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문화관광부 및 지방자치 행정부에서 주도하는 문화예술단체장 인선이나 국고배분 혹은 자체 문화예술지원금 편성 등은 로비를 하는 브로커(?)들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고 순수한 문화예술인들은 항상 그렇듯이 좌절의 연속이 되고 있다.

물론 예술계 내부의 잡음이나 자리다툼으로 인해 제살 깎아먹기 식의 암투가 원인 제공을 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그렇지만 순수한 예술가들을 설득하지 못하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안일한 정책, 예술가를 무시하는 정책에 지칠 대로 지쳐만 가고 있는 현실이 대한민국 예술계이다.

1935년 미국. 경제 대공황이 장기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을 때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Franklin Delano Roosevelt) 대통령은 공연예술계를 위해 '연방정부 극장 정책'을 세웠다. 뉴딜정책이 한창이었던 당시에 루즈벨트 대통령은 배우들의 출연과 티켓가격 등에 적극 개입하여 공연예술의 붕괴를 막고 창조력 고갈을 방지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했다. 당시는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과감한 미국의 문화예술정책 노력에 더욱 감탄을 금치 못하게 한다.

물론 루즈벨트 대통령 자신이 문화예술에 상당히 관심이 많았다는 측면도 간과할 수는 없지만 오늘날 순수예술과 예술인들의 위기를 방치하고 있는 한국정부와 공무원들에게 '연방정부 극장정책'이 시사하는 바는 더욱 크다고 하겠다.

경제 대공황으로 인해 많은 재능 있는 예술가들을 할리우드로 떠나보낸 브로드웨이는 거리마저 삭막하기만 했다. 적어도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실업자들이 넘쳐났던 암울한 1930년대 에 브로드웨이의 가벼운 뮤지컬 코미디는 더욱 어울리지 않았다. 대중을 즐겁게 해주는 뮤지컬 코미디는 할리우드 영화만으로도 충분했다. 대중들은 답답한 현실을 잠시라도 잊기 위해 다소 가격이 저렴한 영화관을 찾았는데 때아닌 호황을 맞이하게 된 영화관에서 사람들은 즐거움을 찾았다. 이런 현상은 한편으론 브로드웨이로 하여금 작품성향의 변화를 가져오게 만들었다. 공연 제작자들은 날카로운 사회인식을 통해 정치와 현실을 풍자하는 작품들을 만들어 영화와는 또 다른 관객층을 형성하게 했다. 이는 북 뮤지컬이 탄생하기는 했지만 아직도 가벼운 뮤지컬 코미디나 보드빌이 주종을 이루었던 당시 브로드웨이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경제적으로는 어려웠지만 사회를 보는 주제의식이나 음악의 다양성과 깊이 면에서 브로드웨이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물론 보드빌류의 가볍고 흥겨운 뮤지컬들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들은 꾸준히 브로드웨이에 한 부류로 전통을 이어 갔고 일부 작품들은 불황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객들을 극장으로 불러들이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제작된 대부분의 작품들은 진정한 풍자정신의 발로였던 보드빌의 벌레스크를 연상시키는 신랄함을 지녔으며 보다 투철한 시대정신을 반영하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다행이었던 것은 장기적인 브로드웨이의 공동화 현상에도 불구하고 몇몇 탁월한 예술가들이 등장하여 브로드웨이 무대를 지켜주었다는 점이다. 이들은 어느 시대에도 뒤지지 않는 명작들을 발표하여 암울했던 1930년대의 브로드웨이를 빛내주었다.

작곡가 조지 거쉬인(George Gershwin, 1898~1937)과 작사가 아이라 거쉬인(Ira Gershwin, 1896~1983) 형제, 작곡가 로저스(Richard Rodgers, 1902~1979)와 작사가 하트(Lorenz Hart, 1895~1943), 그리고 1930대에 스타로 발돋움한 콜 포터(Cole Porter, 1891~1964) 등이 그들이다. 이 무렵 조지 거쉬인은 뮤지컬 명작의 한가운데에 있었으며 콜 포터도 신진이기는 했지만 그의 이름을 각인 시켜주었던 최고의 명작들을 발표한 시기였다. 또한 서사극의 창시자 베르톨트 브레히트(Bertolt Brecht, 1898~1956)와의 작업으로 유명한 독일 작곡가 쿠르트 바일(Kurt Weill, 1900~1950)이 히틀러의 압제로 인해 망명하게 되면서 1930년대 브로드웨이 뮤지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데 일조하였다.

윤우영
(대진대 교수, 연출가)

韓國의 선비정신 · 70

직간(直諫)으로 벼락 승진한 이관명(李觀命)

리효종
포천한시사 대표

"수의어사 이관명 알현이오."

당하관인 이관명이 수의어사의 명을 받고 영남에 내려갔다가 돌아온 것이다. 옥좌에 정좌한 숙종은 용안에 희색이 만면하여 그를 맞았다.

"얼마나 객고가 심하였는가? 그래 민폐를 끼치는 일은 없던고?"

이관명은 국궁하여 임금께 문후를 올린 연후에, "상감께서 밝으시와 지방 관리들이 모두 맑아서 가히 민폐라고 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통영 소속 아래에 있는 섬 하나가 대궐 아무 후궁의 땅으로 되어 있사온데, 그 곳 백성에게 바치라 하는 것이 하도 많고 극심하여, 그 곳 백성들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궁핍하고 아울러 원성이 자자하였음을 보았기로 감히 아뢰오."

이관명이 아뢰는 말을 듣고 숙종은 크게 노하였다.

"과인이 일국의 임금으로 조그만 섬 하나를 과인의 후궁에게 준 것이 무엇이 그렇게 나쁘다고 감히 비방하는고?"

크게 진노한 숙종은 철여의로 앞에 놓은 상을 때리니, 당장에 상이 박살나고 말았다. 궐내의 분위기가 이내 싸늘해지고 말았다.

임금의 진노를 들으면서도 관명은 조금도 굽히는 기색 없이, 또다시 소리를 가다듬어 아뢰기를, "소신이 상감을 모시고 경연에 참예 하올 때에는 이러지 않으시더니, 명을 받아 외지에 나간 지 일 년 동안에 상감의 과격하심이 이에 이르렀사오니, 이는 즉 상감께 간쟁하여 올리는 신하들이 없었다는 것이니 대단히 한심스러운 일이옵니다. 이러니 모든 신하들을 파직시키옵소서."

그는 서슴지 않고 자기가 생각한 바를 솔직하게 숙종께 아뢰는 것이었다.

이러자 숙종은 무슨 생각을 하였는지, 좌우에 시립해 있는 신하를 둘러보고는, "승지, 전교를 쓸 초지를 가져오게 하라."

모든 신하들은 관명에게 큰 벌이 내릴 것을 잘 아는지라, 눈을 아래로 감고 숨을 죽였다. 조금 있다가 승지 신유가 벼루와 초지를 대령하자, 숙종은 분부대로 쓰라고 명했다.

"전 수의어사 이관명에게 부제학을 제수한다."

숙종의 이 분부에 승지의 눈이 번쩍 떠졌으며 붓끝이 움직이지 않고 멈추었던 것이다. 너무도 생각 밖의 일인 까닭이다. 시립하고 있던 신하들도 눈알을 굴려 서로 바라보는 것이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 도무지 예측할 길이 없는 것이었다.

그러자 숙종은 다시 언성을 높여, "승지, 나의 말을 못 알아듣는가? 어서 쓰라."

다시 분부하니 승지는, "예, 황공하오이다."

승지가 당황하여 부제학의 직함 쓰기를 마치니, 숙종은 또 이어서, "부제학 이관명에게 홍문제학을 제수한다고 쓰라"하는 것이었다. 괴이하게 여기는 것은 승지만이 아니었다. 만조백관이 이번에는 쑤군거리기까지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어명이라, 그대로 초지를 쓰는 수밖에 없었다.

이어서 숙종은, "홍문제학 이관명에게 호조판서를 제수 한다고 쓰라."

이렇게 잇달아 어명이 내리었다.

숙종은 이관명의 직품을 세 번이나 높이어 당장에 정경(正卿)으로 삼아 놓은 것이다. 이윽고 하교하기를 "경의 옳음으로 이제 과인의 잘못을 알았기로 경을 호조판서로 앉히는 터이오. 경은 앞으로 그런 민폐가 있거든 항상 서슴지 말고 과감하게 폐지하여 나라를 태평하게 하라"하고 숙종은 옥좌에서 일어나 편전으로 드시었다.

이관명은 숙종의 성은에 감복하여 한참동안 부복하고 있었다.

이관명(李觀命)

1661년(현종 2)~1733(영조 9)

본관은 전주. 영의정 경여(敬輿)의 손자. 대제학 민서의 아들. 문과에 급제, 교리를 거쳐 참판, 예조판서, 양관대제학, 이조판서에 점임. 반대당 김일경(金一鏡), 목호룡(睦虎龍)의 무고로 신임사화(辛壬士禍)가 일어나 아우 건명(健命)이 노론 사대신의 한사람으로 극형을 받자 이에 연좌, 덕천(德川)에 유배, 노복이 되었다. 그 후 진실이 밝혀져 풀려나와 우의정이 되고 이어서 좌의정에 이르렀다. 시호는 문정(文靖), 흥덕(興德)의 동산서원(東山書院)에 배향.

세계가면 전시회 포천반월아트홀에서

7월23일부터 8월24일까지 매일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7월23일부터 8월24일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포천반월아트홀 전시장 1층,2층에서 세계 각국의 가면 및 관련작품 200여점을 전시할 예정이다.

관람료는 2천원이며 유료체험은 가면 칠하기 6천원, 옷·가방 만들기 6천원, 판화 만들기 4천원이며 무료체험은 탁본, 가면따라 그리기, 가면쓰고 사진찍기 등이다. 유료체험을 할 경우 별도의 전시 입장료 없이 전시를 관람할 수 있다.

이번 전시는 가면의 유래와 춤 축제의 기원과 역사를 살펴봄으로써 현재의 춤과 가면의 문화를 한번 더 되짚어 보고 세계 각국의 춤을 통한 축제의 행태와 문화를 알아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면은 오랜 시간 동안 인간의 생활과 함께 했다. 그래서 가면에는 인간의 감정이 깃들어져 있으며 각각의 가면을 착용한 사람들은 가면과 하나가 되어 인간의 감정을 대변한다.

또한, 가면과 춤의 연관성 그 유래와 역사가 매우 오래되었고 형태도 다양하다. 또한, 각 나라의 문화가 접목되면서 가면이라는 도구를 통해 더 흥미로운 이야기 거리가 되고 있다.

전시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천반월아트홀(031-538-2938~40)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수필가 김창종의 〈포천 이야기〉 (204)

영혼의 소리

옛날 내 고향 출신 선비가 출사하여 높은 벼슬살이를 하다가 늙어서 임금께 궤장(机杖)을 받고 낙향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누리지 못한 영화(榮華)가 없는 생활이었으나 깨닫지 못한바가 너무 많았다.

그래서 먼저 낙향한 선비들을 서원으로 찾아가서 보람된 삶을 자문하기에 이르렀다 한다.

"그게 소원인가? 그렇다면 자네는 영혼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어떨까?"

"영혼의 목소리라니요?"

"모를 것일세 자네는... 공동묘지에 가면 수많은 죽은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일세... 그 곳에서 죽음의 세계에서 사는 철학을 깨닫게 될 것일세 마는... 그것 또한 자네의 맑고 정직한 영혼만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네"

도통(道通)한 듯한 선풍도골(仙風道骨)의 선배 선비에게 들은 의미심장한 이야기는 자문을 구하는 선비의 마음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하였다. 그래서 그 날 즉시, 목욕재계하고 마음을 가다듬은 다음 공동묘지가 아닌 크고 높은 벼슬을 지낸 듯한 사람의 묘소를 찾아 가 나무 위에 숨어 귀를 기울였다.

"허- 고약한 놈 어찌 그럴 수가 있단 말인가? 어찌 정성이 깃들지 않고 정갈치 못하단 말인가? 제사상 음식 속에다 뱀을 넣다니... 나 보고 뱀을 먹으라고...? 내 살아 생전에 그리 안 가르쳤거늘... 괘씸한 놈 같으니..."

아마도 그 날이 묘소의 망인이 제삿날로 제사를 받으러 갔다가 오는 영혼의 목소리인 듯 하였다.

'옳거니... 내 할 일이 있으렸다.' 그 길로 비석에 적힌 주소를 찾아가 보니 온 집 안이 난리가 났다.

"아이고 웬 일인고? 제삿날 상주가 두통을 앓고 눕다니..."

"오늘이 제삿날이시지요? 제상에 올렸던 음식을 검사해 보시지요."

그래서 제사 음식을 검사해 보니 음식 속에서 긴 머리카락이 나왔다.

"음식을 다시 차려 제사를 다시 정성껏 모시도록 하시지요"

근엄하고도 진지한 선비의 충고를 들은 망인의 가족(유족)들은 새로 제물을 정갈하게 준비하고 다시 목욕재계한 다음 제를 올렸다. 그랬더니 씻은 듯이 상주의 두통이 완쾌되었음은 물론 온 집안이 화기(和氣)에 넘치고 일익번창(日益繁昌)하였다 한다.

그 후, 영혼의 목소리를 들은 선비는 사후세계(死後世界)가 존재하여 영혼의 세계가 살아있음을 깨달았다고 한다.

이 이야기를 진실로 믿기에는 그 자체가 이야기에 끝나는 바로 생각할 수 있겠으나 우리에게 시사하는바가 크다.

우리의 전통사회는 조상신을 믿는 사회로 이어 왔음을 알려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필자연락처 02-932-2434

초대 漢詩

八旬生朝有感(팔순생조유감)

楊載昌
前 포천향교 전교

八耋生朝感慨新(팔질생조감개신) 八十 생일을 맞이하니 감개가 깊은데
歷來歲月似風塵(력래세월사풍진) 지나간 거친 세월이 풍진같이 지나갔네.

素性過愼難成意(소성과신난성의) 타고난 천성이 넓지 못해 뜻을 다 이루지 못하고
處世無貪幸健身(처세무탐행건신) 처신은 인정이 많아 다행히 몸만 지켰네.

誨職事修名未顯(회직전수명미현) 교직으로 외길을 걸었지만 이름은 내지 못했으며 (四十五年)
儒林晩就志無伸(유림만취지무신) 유림에 늦게 참여하여 뜻을 펴지 못했네. (十五年)

賤齡白首望何事(천령백수망하사) 남은 여생(白首)에 어떤 일을 바라리요
但願吾家不逆眞(단원오가불역진) 다만 내 가족들이 바른길 가기를 바랄뿐이네.